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6호 [부제 제25855호] 주체106(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 8 차 군수공업대회 성대히 개막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들고 온 나라 천만군민이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드높이 주체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해나가고있는 속에 제 8 차 군수공업대회가 12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대회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병전로선 따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발악적인 반공화국암살책동을 짓부시며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위용이 만천하에 과시되고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과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현대적인 무기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강위력한 주체혁명의 병기창으로 전변되어 세계를 놀래우는 특대사변, 대경사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창조할수있도록 승리와 영광의 한걸음 걸어들었다.

투자부의 전총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력부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당의 장구한 행로는 빈리우에서 자립적

국방공업의 이천을 억척같이 다지시고 만년시련을 파갈이 뚫고 헤치시며 우리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절대적인 인민의 천제적인 선전지령과 담대한 배장,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이다.

이번 대회는 자위적국방력강화에 쌓아 올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배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당의 군수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병전의 기치높이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소,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력혁신자, 일군들과 편만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4. 25문화회관 대회장으로 들어서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고 주체적국방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강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 사생결단의 예국헌신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특종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더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태종수동지, 노광철동지,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 홍승무동지, 홍영철동지와 각 도당위원회 위원장들, 당의 병전로선관철

에서 모범적인 국방과학연구소,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태종수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당의 병전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일심단결의 대진군, 자력쟁쟁의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제 8 차 군수공업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광란적인 핵전쟁소동과 사상쇠락의 체제책동에 매달리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절멸시키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한순간도 놓지 말고 들어위고나가야 할것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수공업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우리 당 병전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이번 대회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국방공업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력사, 조선로동당의 혁명력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주체적국방공업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지체없이 자체의 국방공업을 창설함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새 조국건설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강신결에 앞서 평원길을 걸으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조국방위전쟁시기에도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군수공업기지를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때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어 국방공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전지령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빈리에서 기관단총생산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국방공업은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생산체제와 커다란 잠재력을 갖춘 자립적인 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